

주인공에 비쳐진 작가(Yourcenar¹⁾)의 인생관*

— *Un Homme obscur, Une belle Matinée*을 중심으로 —

정 경 위**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자연보호가 |
| 2. 자연인과 문명인 | 3.2. 자연순응가 |
| 2.1. 인간의 본성 | 3.2.1. 선입견이 없는 인간애 |
| 2.2. 문명과 인간성의 타락 | 3.2.2. 운명에 대한 순응성 |
| 2.2.1. 문명과 돈 | 3.2.3.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고 |
| 2.2.2. 문명과 상류층문화 | 4. 우주역사속의 라자르(Lazare) |
| 3. 자연속의 나따나엘(Nathanaël) | 5. 맺는말 |

1. 머리말

다루어질 짧은 소설 두개²⁾는 작가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가 죽음을

* 이 논문은 1992년도 숭실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1) Marguerite Yourcenar(1903~1987)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프랑스, 어머니는 벨기에인이었다.

2) *Un Homme obscur*는 “수수께끼의 사나이”로 *Une belle Matinée*는 “아름다운 아침”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Anna soror*...라는 작품과 함께 *Comme l'Eau qui coule*라는 제목으로 1982년에 출판되었으나, 1985년에는 *Un Homme obscur, Une belle Matinée*만으로 단행본이 되었다. 특히 *Un Homme obscur*는 작가가 선호하는 작품중의 하나라고 한다. cf. J. Savigneau : Marguerite Yourcenar, pp.72, 431~2.

가까이 느끼며, 삶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는 고향, 76세(1979)에, 젊은 시절에 쓴 작품을 2년동안 개작하여, 1985년에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수수께끼 사나이”는 20대 청년이 겪은 짧은 생애를, “아름다운 아침”은 10대가 연극을 통하여 간접경험하는 온갖 삶을 그리고 있다. 결코 평탄치 않았던 수수께끼 사나이, 나따나엘(Nathanaël)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문명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동시에, 엉뚱하게 빠져 들어간 환경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 남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아침”의 주인공 라자르(Lazare)가 상상해보는 여러 역할(삶)을 매개로, 서술자³⁾는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우주역사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1. 자연인과 문명인, 2. 자연속의 나따나엘, 3. 우주역사속의 라자르로 구분하여 유르스나르의 인생관을 살피고자 한다.

2. 자연인과 문명인

기복이 심하고 가히 모험적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나따나엘의 삶을 살펴보면, 작가가 은밀히 피력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작가는 그럴사한 우연(le hasard)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순탄할 수도 있었을 나따나엘의 일생을 기구한 운명으로 만들었다. 즉 그 당시(17세기) 최고 문명을 누리고 있는 유럽에서 원주민 인디안과 갓 이주한 이민들이 자연에만 내맡긴채 원시인생활을 하고 있는 신대륙 아메리카로 유전하게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문명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원천적 본성, 문명이 주는 혜택및 피해를 나따나엘의 경험으로 느끼게 하여 들추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1. 인간의 본성, 2.2. 문명과 인간성의 타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 두 소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narrateur)는 Genette이론(Discours du récit)에 의하면, 알고있는 것이 인물보다 더 많은 서술자(시선이 정해지지 않은 focalisation zéro에, narrateur omniscient)이므로, 작가의 감정, 의견, 사상을 어려움없이 직접적으로 대변한다고 하겠다.

2.1. 인간의 본성

서술자는 원시적 생활을 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유럽인이 지니는 본성은 같다고 본다(Les hommes sont partout des hommes. 33⁴⁾) 즉 인간의 야수성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다.

원주민은 마소를 그들과 대등히 여겨, 집안에서의 방뇨를 허락하는가 하면, 유럽인은 원주민을 가축보다도 못하게 채찍질로써 노예로 부린다. 동물이 인간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이나 인간이 동물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지니는 동물과의 상응성, 야수성을 의미한다. 이 야수성은 전리품으로 적의 머리가죽(des scalps)을 집으로 가져오는 인디언의 습관이나, 사형에 처해진 자의 머리를 런던탑에 거는 영국인의 관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자는 용감하고 자랑스런 승리를 상징하지만 후자는 상징의 뜻대신 위협하는 잔인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작가는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동물적 본성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순수 상징적인 의미를 잃고 잔인성으로 타락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2.2. 문명과 인간성의 타락

야수성에 그치지 않는 인간다움이란 동물이 지니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문명의 혜택을 입은 유럽인보다는 어려운 환경과 싸우는 원주민에게서 더 쉽게 발견된다.

온 식구가 생업에 매달려야 먹고 살수 있으며, 자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속의 자연인이지만, 인디언은 아무리 풍부한 자연양식앞에서도 결코 필요이상의 덩을 놓지 않는 욕심없는 인간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새로운 이웃의 방문이 곧 축제가 되어버리는(L'arrivée de Nathanaël changea la nuit en kermesse. 161) 자연발생적인 따뜻한 정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다. 동물을 인간처럼 대하는 그들이기에 자기들 땅을 뺏으려고 이주한 백인을 헤치기는 고사하고 도와

4) 이후 숫자는 본문이 인용된 페이지를 대신하기로 한다.

주는 것은 그들 순수함의 또다른 예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인간성의 타락은 자연인이 헤어나지 못한 끊임없는 육체노동에서 해방된 도시인에게서, 분업된 구조속에서, 빵은 빵집에서, 고기는 푸줏간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동전을 내밀고 받는 행위”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암스텔담인에게서 잘 보여진다. 특히 학식과 부를 갖춘 사람에게서 더 심하게 노출된다. 나따나엘이 처음 인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을때, 동료인 인쇄공들은 친절히 작업을 가르쳐주나, 저자인 유식한 학자들은 배움을 얻고자 묻는 그의 순수성을 간파하지 못한채 외면하는 것이었다.

더 심한 예는 상류층 반 헤르조그(Van Herzog)에서 발견된다. 동창이었으며, 같이 부유한 환경에서 출발한 친구 벨몽뜨(Belmonte)가 끝까지 자신의 이념을 따르다 병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매장한 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불쌍히 여기면서도 만남을 미루다 결국 상면 못하고 만다. 나따나엘은 그에게서 벨몽뜨보다 “더 죽은 모습 스무살은 더 늙어보이는 모습”(plus mort que Belmonte deux heures avant sa fin et plus vieux de vingt ans. 135-6)을 보았다. 이는 아무리 부와 문화를 만끽하면서 화려하게 현세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더라도 인간성의 순수함을 잃은 자는 죽은 이보다도 못하다라고 역설하는 작가의 대변이다.

이렇게 몇개의 심도있는 간단한 예로써 인간이 쌓은 문명의 혜택을 입은 자일수록 인간성이 타락되어 있다고 은밀히 피력하고 있는 작가의 문명에 대한 비판을 살필 수 있다.

2.2.1. 문명과 돈

문명의 혜택을 입어 자연인보다 편하게 사는 도시인, 그들의 생활은 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최대로 집착하는 것은 돈이다. 돈이 도시인의 인간성을 어떻게 말소시켜 버리는지 작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돋보이게 한다. 돈이 혈육보다, 우정보다 우선임을 삼촌(Elie Ariansen)과 동료(Niklaus Cruyt)의 예를 들어 구체화한다.

나따나엘은 자신의 몫을 키우고 있다는 삼촌을 찾아 암스텔담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삼촌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조카를 애끼는 마음

에서라기보다 지불을 늦추기 위한 방편의 결과이었다. 예기치않은 결혼과 출산비용에 쓰고자 나따나엘이 자기 몫을 요구했을때 삼촌은 다른 두 형들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밝히지 않은채 영수증에 서명케 한다. 그가 아파서 결근했을 때는 날짜를 세어 월급에서 제할 뿐 아니라 장기 결근하니 아예 파면시켜 버리고 만다.

이렇게 혈육에 대한 인정이 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돈때문에 무척 치사하게 사기횡령하는 부도덕한 엘리 삼촌은 기독교 형식을 열심히 실천하는 종교인으로 묘사되어 그만큼 더 위선적인 인물이 되고 만다. 문명의 옷을 여러겹 걸친 풀이나 인간다움은 전혀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작가의 신랄한 비판이 엿보인다

크뤼트경우는 동료이었기에 우정을 믿고 엘리에게서 받은 돈을, 형들의 몫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다. 그러나 그가 인쇄업에 망했을 때 도리어 모든 것을 되려 나따나엘에게 뒤집어 씌워 책임회피하는 것이었다. 그와의 우정이라는 것이 들어서 공통으로 지냈던 엘리에 대한 악감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따나엘은 때인 돈보다도 믿었던 우정에 더 실망한다.⁵⁾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우정도 미끼로 쓸 수 있으며 심지어는 경쟁자이었고, 원수이기도 했던 자 밑으로 다시 들어가 아부도 할 수 있다고 작가는 크뤼트경우에서 밝히고 있다.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도 없는, 주인공을 그리면서도, 돈이 아쉬워지면은,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작가는 인간성을 말소시키는 문명의 선물, 돈의 피해를 심각히 부각시키고 있다.

2.2.2. 문명과 상류층 문화

물질문명이 풍요로와지면 인간은 정신문화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이런 인물의 대표가 반 헤르조그이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으로 상선을 보내 그곳 물자들을 들여와

5) "File, Salaud ! Ça manigance avec son oncle pour ruiner les petits concurrents ..."
Nathanaël n'en entendit pas davantage ... Il plaignait le vieux, mais le pis était qu'il l'avait cru un ami. Pour parler franc, cette prétendue amitié ne masquait qu'une commune antipathie contre Elie." p.81.

돈을 벌었다. 침몰한 경우를 철저히 계산에 넣어 이익을 챙겼다. 그것은 인명을 무시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노동을 착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서술자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의 축재로 그들 후손들은 하인을 고용하고 사교계를 형성하여 소비성 짙은 생활을 향락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과학실험을 했으며, 음악을 연주케 하였으며, 수집된 미술품 감상회를 열었으며, 회한한 이야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화인이었다.

그러나 나따나엘 눈에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우스워 보인다. 그들은 음악이 그리는 세계를 더듬어 찾는 대신 형식에 매여 박수치기에 급급한가 하면 “애들 장난”같이 보이는 과학실험을 마치 앞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과정을 밟고 있듯이 엄숙히 기구를 다루는 것이었다. 앞가슴이 조금만 더 패여도 외설스럽다고 힐난하면서도 그림속 여zana체는 아름답다고 하는 모순을 보이는 상류계층이었다. 그런가하면 자신의 체험, 신대륙에서의 처절한 고생담을 그시대 유행처럼 금광으로 덮힌 아메리카에서 죽음직전에 인디언 추장딸로부터 구출 받은 행운아의 연애담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낀 나따나엘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나름대로 전반적인 인류문화를 생각해 본다. 로마 시인 오비드(Ovide)의 사랑의 시가 아름답지만 자신이 체험한 자네와 푸와와의 사랑만 못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시는 자연속의 새소리라고 단정짓는다.

다른 예로서 인간사고력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철학을 들고 있다. 그것의 정리(théorèmes, axiomes), 삼단논법(syllogisme)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나, 땅에 발을 붙이고 또 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에게는 철학은 공중에 떠있는 다리(Pont levis)같은 것이어서, 현재를 회피케 하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정신문화가 아름다움으로 점철된 것이나 현재를 살아주는 것이 아닌 바에는 무시될 수 있다는 인류문화역사의 불필요성을 뜻하며 동시에 인류본능적 미의 추구는 자연속에서, 인생경험에서, 자신의 경우에서와 같이, 더 아름답게 실현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따나엘을 통하여 인류문명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

여주는 한편 자연속의 인간, 즉 자연을 관조하고 현순간을 충분히 살 줄 아는 것이 으뜸이라고 증명해 보이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이장에서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자연인 나따나엘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자연속의 나따나엘(Nathanaël)

나따나엘이 겪은 모험은 세시절로 구분할 수 있다: 바다와 북대서양연안시절, 암스텔담 인쇄공 시절, 귀족집의 하인시절. 그는 10여년동안에 밀바닥에서부터 사회의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시대로써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색다른 경험을 한 인물이었다. 그의 특색을 1. 자연보호가, 2. 자연순응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1. 자연보호가(l'écologiste)

그는 무엇보다도 동물들을 사랑했다. 그것들을 대하자마자 곧 교감이 이루어지고 친구가 되었다. 몰래 승선했을때, 배위에 있던 개와 곧 친해졌다: "Nathanaël ne manquait jamais de faire amitié avec les chiens. 14" 대서양연안에 묶여 원시인생활을 할때, 숲에서 드물게 만나게되는 곰을 보았을때, 새끼여우(renardeau)를, 뱀(couleuvre)을 발견했을때, 그것들이 그를 해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에 잡힐까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마치 그들과 협정이나 한듯이.

호랑이의 밥이 될뻔한 강아지를 입장료와 바꾸어 데리고 온 예를 보더라도 나따나엘은 동물애호가임을 알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양식을 채취해야 하는 섬생활에서, 그는 사냥이나 낚시보다는 열매채집을 즐기 했다. 덫에 걸린 짐승을 죽일수도, 할딱거리는 물고기를 쳐다볼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식물도 사랑하여 큰 덩치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여 벌목당하는것을 마음 아파했다.⁶⁾

6) "Il ne parla à personne de cette rencontre, comme s'il y avait eu entre

다른 짚이 물기를 품었을때 내뿜는 냄새를 풀이 지니는 기억력이라고도 했다⁷⁾

그는 동식물을 인간과 대립되는 관계로 여기지않고 도리어 형제나 친척쯤으로 느낀다고 했다(Il ne se sentait pas, comme tant de gens, homme par opposition aux bêtes et aux arbres ; plutôt frère des unes et lointain cousin des autres. 169)

3.2. 자연 순응가

이렇게 천성이 고운 나따나엘은 또한 순리를 따른 자이다.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 불평한다든가 반항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신대륙에서의 무지스러운 고생도, 자신의 진지하고 뜨거운 사랑에 대한 사라이의 배반도, 삼촌한테 당한 사기도 그로 하여금 운명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헐뜯게 하지 않는다. 1. 선입견이 없는 인간애, 2. 운명에 대한 순응성, 3.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고로써 나따나엘의 우주법칙 순응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3.2.1. 선입견이 없는 인간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만큼 자라난 환경의 지배를 받아,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기 마련이나, 나따나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영국 군함이 프랑스인, 제취이뜨(Jésuite)신부들을 향해 포격을 가했을때, 전투에는 관심조차 주지않고, 달

← l'animal et lui un pacte. Il ne parla pas non plus du renardeau rencontré dans une clairière, qui le regarda avec une curiosité quasi amicale, ... Il garda le secret de la partie du bois où il avait vu des couleuvres, ... "Le garçon (Nathanaël) chérissait de même les arbres ; il les plaignait, si grands et si majestueux qu'ils fussent, d'être incapables de fuir ou de se défendre, livrés à la hache du plus chétif bûcheron." p.31.

7) "...quelques bottes d'herbe douce... dont la vertu est d'exhaler nouveau, quand le temps tourne à la pluie, l'odeur qui a été sienne des mois, parfois des années plus tôt, lorsqu'elle était encore verte et fraîche au bord des cours d'eau. Nathanaël pensait que c'était presque comme si cette herbe avait une mémoire." p.36.

러가서 숨겨가는 신부의 유언을 들어주는데 급급한다. 자마이카섬에서는 채찍질에 부대끼며 하역하는 노예를 보고 무언가 통하려고 애쓰는 그를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저능아인 자기 처남에게 애써서 풀피리와 바구니 짜는 것을 가르치고, 죽은 아내가 했듯이 머리의 이를 잡아주어 그 애를 즐겁게 한다. 섬 한쪽 구석에 살고 있는 두 여인, 불구인 노모와 발작이 나면 꼼짝없이 며칠을 식음전폐하고 누워있어야 되는 오십대 딸을, 폐결핵으로 인해 연약해진 몸으로 온 힘을 다 해 도와준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상대하기 꺼릴 사람들 - 전쟁터의 적, 노예, 저능아, 장애인 - 에게 구애됨이 없이 동정을 느끼고 실천하는 인간애의 순수성을 우리는 나따나엘에게서 찾는다.

3.2.2. 운명에 대한 순응성

이토록 순수한 인간애를 지녀 한곳에서 평화로이 살 수도 있었을 나따나엘이지만 운명의 흐름에 따라 몇번의 큰 방향전환을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의 계기는 우연히도 여자로 인한다. 고향의 첫 애인, 자네(Janet)로 시작된다. 그녀를 따라다니는 상인을 살해했다고 오해하게 되어 가출하여 배를 타게 된다. 푸와(Foy)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세계 북미에 정착하게 되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권고로 암스텔담에 가게 되어 삼촌네 인쇄소에서 일하게 된다. 인쇄공 생활의 종지부는 두번째 아내(Saraï)의 배반으로 이루어진다. 상류사회를 파악할 수 있게 한 하인생활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구해준 부잣집 집사⁸⁾(Mevrouw Clara, l'intendante de Monsieur Van Herzog)의 알선으로 이루어진다. 폐결핵이 심해지자 주인 마나님(Mme d'Ailly)의 주선으로 외딴섬 섬지기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8) 나따나엘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반 헤르조그의 집사(Mevrouw Clara)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여인이나, 나따나엘에게는 죽음(les allégories de la Mort)이 연상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여인이 늘 의사의 실험재료로 쓰이는 가난한 병자와, 고문이나 간수의 횡포로 시달리는 죄수를 도와주면서도,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Le monde était ainsi fait.) 라고 체념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짧은 일생을 끝맺는다.

이처럼 나따나엘은 우연으로 점철된 운명에 이끌려 갔으며, 매 전환점마다 엉뚱하고 새로운 공간에 던져졌다.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는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작별인사도 없이 자네와 헤어진 후 그는 환경이 부여하는 대로 본의 아닌 다양한 사랑경험도 한다. 무단승선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인 그를 부업조수로 쓰겠다고 제안하여 그의 생명을 구해준 검은 피부의 혼혈, 주방장의 애무도 받아들였고, 그의 호의로 창녀촌에도 가본다. 이때 그는 자네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반면, 그를 특별히 그리워 하지도 않고, 원망도 않는다. 단지 어렵풋한 혐오감을 느끼며, 차라리 그 중의 하나와 영원한 사이였으면 한다. 그러리라고 믿었던 자네의 경우를 회상하고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마는 나따나엘이다.⁹⁾ 다시 한번 밑바닥 인생이라고 업신여기는, 일반인이 갖는, 편견이 전혀 없는 순수한 나따나엘, 자신의 뜻대로 생이 살아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빨리 체념하는 나따나엘을 본다.

북미해안을 돌던 배가 난파되어 나따나엘은 그곳에 남게 된다. 떠날 기회를 엿보던 중, 얼떨결에 그의 생명을 구해준, 일손이 딸리는 이민은 부부의 의도에 따라 그들의 딸(Foy)과 혼인한다. 그는 결혼약속한 자네가 또 떠올려졌으나 그것은 그를 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두 여자에게서 똑같은 여자속성을 엿보았기 때문이었다(“Il lui arrivait de penser ensuite à Janet, non qu’il eût mieux aimé celle-ci, mais parce qu’il lui semblait que Janet et Foy étaient la même femme.” 31-2)

이는 결국 없으면 안 될 절대적인 개개인의 존재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되어도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푸와가 폐결핵으로 죽어, 다시 유럽으로 와서 인쇄공으로 있을 때 그는 술집 가수, 사라이를 알고 나서 사랑에 빠진다. 운명의 장난(사라이의 피신처가 됨)으로 결혼에 이르고 아들(Lazare)을 낳게 된다. 처음으로 사랑이 가져다 주는 희열과 행복을 느

9) “Mais ces amours payées, réduites, faute de temps, une brève étreinte ; …l’emplissaient d’une vague répugnance ; …il aurait voulu avoir une de ces filles bien à soi et pour longtemps, peut-être pour toujours, comme il avait cru avoir Janet. Il n’y fallait pas songer.” p.16.

겨 그것을 간직할 가정을 꾸며 보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매춘과 도박을 버리지 못하는 사라이를 목격하고는, 나따나엘은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따뜻한 인간애¹⁰⁾ 를 찾아 나섰으나 운명은 허락지 않는다. 처음으로 주인공의 적극적인 면이 엿보이나 아마도, 무시못할 지나간 수년동안의 파란만장한 경험이 자포자기하여 눈이 내리는 길거리에 눕게 하고 만다. 이렇듯 나따나엘은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개의치 않는 절망에 이르렀어도, 일언 반구의 반항이나 원망도 없이, 또한 바램도 없이¹¹⁾, 과거를 생각지 않고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남에게 거스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여린 마음씨¹²⁾를 가지고 현실을 충실히 살았다. 그러나 조그마한 오해로 인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온갖 거친 경험과 생사를 넘나들은 수많은 고생을 사년동안 했다고 생각하니, 큰 빙벽이 바다속으로 떨어지는 것같은 느낌을 나따나엘은 받는다. 산다는 것은 다름아닌 공중누각이며 우연에 의해 언제나 붕괴될 수 있으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나따나엘이 두번째 깊은 구렁을 느꼈을 때는, 몸도 마음도 더 살아갈 뜻을 잃고 있었다.¹³⁾ 운명에 지친 주인공을 본다.

10) "Mais le besoin d'un peu de chaleur humaine l'habitait encore." p.81.

11)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적도 없었다고 나따나엘은 회상한다: "Il n'avait jamais été riche ni réputé ; il n'avait jamais souhaité être l'un ou l'autre." p.169

12) 어찌나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 만약 사라이가 훔친 물건을 같이 팔러 가자고 제안했었다면, 자신은 승낙했을테지만, 그래도 행운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고마워 한 나따나엘이다. cf. p.169

13) "Ainsi ses craintes paniques, sa fuite, ses aventures au Nouveau Monde ne tenaient à rien. Elles auraient aussi bien pu ne pas être ; il aurait aussi bien pu rester lire du latin dans une salle d'école. Quatre ans de sa vie croulaient comme un de ces pans de glace qui tombent de la banquise et plongent d'un bloc à la mer." p.40 "Cette année de passion et de déconvenue tombait au gouffre, comme tombe un objet qu'on lance par-dessus bord, comme étaient tombés, à son retour Greenwich, ... Tout cela aurait pu n'avoir jamais lieu." p.78.

3.2.3.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고

운명의 굴절에 대해 무심하다면 무심한 나뫼나엘이었으나 정작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 그는 예민한 관찰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활발히 움직여 죽음을 미련없이 받아 드린다. 그의 논리정연한 이성의 사고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위 사람들의 배려로 휴양차 섬지기로 섬에 살게 되었을때는 벌써 그의 폐결핵이 많이 악화된 후이다. 광활한 하늘과 바다에, 혼자 남은 그에게, 이웃도 시계도 없는 생활이 계속된다. 해뜨기와 해지기만이 유일한 변화로 사건이 되면서 시간이란 개념이 우선 없어진다(Le temps cessa d'exister. ... le temps passait comme l'éclair ou durait toujours. 163). 그리고 칠흙에 싸여 알몸으로 모래에 있으면, 자신은 많은 물체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Il n'était alors qu'une chose parmi les choses. 164). 주인공이 놓여진 이러한 캄캄한 밤과 시간의 흐름이 영원한 공간은 캄캄하고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킨다. 지속되는 고독을 벗어나고자, 나뫼나엘은 새들을 따라 자기 이름을 불러본다. 새들 소리와는 달리, 어떠한 의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용치 않는 언어의 운명처럼 용도가 없어진 자기 이름이 죽은 것 같다(ce nom inutile semblait mort comme le seraient tous les mots de la langue quand personne ne la parlerait plus.165). 동일체였던 이름의 죽음은 나뫼나엘의 상징적 죽음이다. 점차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뫼나엘을 엄습한다. 그는 죽음의 절박성에 맞서 죽음을 생각한다. 모든 상식과 경험을 동원한다. 동물도 죽으려면, 구덩이같은데 혼자 들어가서 죽고, 의사옆의 환자도 결국 혼자 죽어갔다. 그가 끝까지 임종을 지켜 봐 주었던 주방장도, 제취이뜨 신부도, 푸와도, 자기의 도움은 별 효과없이 혼자 죽어 갔다. 견디기 어려울수록 죽어가는 과정을 잘 지켜보아야 된다고 그는 느낀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지만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이때까지 만난 모든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과 환경이 자기에게 불행보다는 행복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한다.¹⁴⁾ 그리고 자기의 신원을 따져 본다. 부모로

14) 이곳에서 행복이란, 곁에 있어도 맛 볼 줄 모르는, 보통사람은 짐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이 주는, 풀뿌리 씹는 것 같은 것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나뫼나엘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부터가 아니라, 부모의 몸을 빌렸을 따름이다(il avait seulement passé à travers eux (les parents). 169). 일반적인 구분, 남, 녀, 동식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도 식물처럼 바람(운명)이 씨뿌린 곳에서 햇빛과 물과 양분을 얻어 살기 때문이다. 나타나엘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린위치에서, 북미섬에서, 암스텔담에서 그리고 지금 이 적막한 섬에서. 쇠약해지는 몸에 반비례해서 머리 꼭대기에서 강하고 밝은 불을 느끼면서도, 철학자처럼 영혼의 문제로까지 추론하기를 그만두고,¹⁵⁾ 있는 그대로의 상태, 보이는 법칙만 인정한다: 주위에는 자연이 있고, 그속에 있는 벌레는 살다가 죽는다. 자기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인생살이란 이런 것이다. 지난 여름의 벌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듯이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하여 그는 동물처럼 죽을 자리를 찾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서, 온통 모래언덕으로 둘러 싸인 움푹 파인 곳에 누워 죽음을 기다린다.

육체적 고통을, 철저한 고독을 뛰어 넘어 무서운 죽음을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많고 결단력있는 주인공을 본다.

← “Tout bien compté, il lui semblait que les hommes et les circonstances lui avaient fait plus de bien que de mal, qu’il avait joui, au fil des jours, plus qu’il n’avait souffert, mais sans doute de bonheurs dont bien des gens n’eussent pas voulu. ... comme de mâchonner un brin d’herbe.” p.168.

15) 그의 소설 Mémoires d’Hadrien에서도 죽음을 맞아 회고록을 쓰는 황제 아드리앵도 똑같은 의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고찰이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쉽게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La méditation de la mort n’apprend pas à mourir, elle ne rend pas la sortie plus facile, p.310)

그리고 “눈을 뜨고 죽음으로 들어가도록 애쓰자”(Tâchons d’entrer dans la mort les yeux ouverts, p.316)라고 끝을 맺는다.

4. 역사속의 라자르(Lazare)

서술자는 라자르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나파나엘과 사라이의 아이일수도, 아널 수도 있는, 출생이 분명치 않은 소년으로 묘사되어 있고, 부모를 모르는채 포주(Mevrouw Loubah)집에서 문지기로 일하며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전에 표명한 식물의 씨에 비유된, 나파나엘의 인생관과 같은 맥락임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루바의 오래된 애인, 나이 많은 영국 연극인(Herbert Mortimer)의 도움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많이 듣게 되고 대사를 익히게 된다. 그의 천부적인 소질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유랑극단을 따라 가기로 결심한다. 떠나기 전날 그는 상상해 본다.

여장하여(déguisé en fille) 할 모든 소녀역을 꿈꾸어 본다 : Rosalinde, Juliette, Jessica, Cléopâtre.¹⁶⁾ 그리고 열여덟 스무살이 되어 그나이에 맞는 청년역을 그려 본다 : Orlando, Roméo. 그다음, 삼십대 기사(chevalier)와 그 부인역할, 더 나이가 들어 사십이 되면, 시저(César)같은 왕과 햄릿엄마(grosse reine de Danemark), 맥벨트부인(Lady Macbeth), 가마솔을 꿩게 하는 수염많은 마녀(sorcières)를 떠올린다. 또한 관객을 웃기는 어릿광대(pitre)도 생각해 본다. 육십대가 가까이 되면 오십년동안 지속된 하인(Adam)의 충성심을 맛보는 Orlando를, 과거 자기가 했었을 딸역 제씨카를 회상하며 연기하는 고리대금업자(Shylock)의 모습을 꿈꾸어 본다, 차라리 신(quasi Dieu)같은 마술사가 되어 마력으로 파도를 진정시키고 춘몽처럼

16) 이곳에 언급된 셰익스피어작품과 작중인물은 다음과 같다.

Comme il vous plaira(As you like it) ; Rosalinde, Ganymède(남장한 로자랜드), 그의 사촌 Aliéna, 로자랜드의 애인 Orlando, 광대 Touchstone 등

Romeo et Juliette (Romeo et Juliet) ; Juliette, Roméo 등

Les Joyeuses Commères de Windsor (The Merry Wives of Windsor) ; Fasltaff 등

Le Marchand de Venise (The Merchant of Venice) ; Shylock, 그의 딸 Jessica 등

La Tempête (The Tempest) ; Prosper, 그의 딸 Miranda 등

이 인물들을 말하자면 세계의 신비앞에 놓이거나 정열에 사로잡힌 인물로서 세대를 따라 상징하는 원형인간이라고 하겠다.

지나가버리는 것을 아름다운 말로 낭송하는 프레스페르 (Prosper l'Enchanteur)도 꿈꾸어 본다. 나아가 아주 늙으면 무대조명을 끄는 인부, 아니면 대본을 옆에서 읽어주는 역(souffleur)을 하리라 생각하고 회열(fièvre de joie)에 싸인다.¹⁷⁾

이렇게 라자르가 연극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회열에 싸였다고 함에는 인생이란 잠에 둘러싸인 것인 만큼(un sommeil dont notre vie est enveloppée) 꿈에서처럼 단숨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실를 비참하게 보는 대신 일생을 통하여 그 많은 주인공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면 산다는 것이 변화 있고 다양해질 수 있으며, 재미도 있다라고 역설하는 것이 된다. 십대의 아이에게 인생에 대한 이런 식의 과감한 관점을 대입시킴은 인생을 다 살고 난 팔십 노인, 작가 유르스나르나 토로할 수 있는 인생관이다.

5. 맺는말

나타나엘과 라자르를 통하여 작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선명히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나이, 성별, 종교, 피부색, 사회적 신분, 학식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이점이 많은 것 같으나, 파란만장한 나타나엘의 생애를 더듬어 보니, 동물적 본성을 가진 인간은 관습과 교육으로 달라져 있으며, 문명으로 인해 좋은 인간성이 많이 타락해져 있음을 보았다. 개인 각자가 볼 때는 자신의 삶이 단 한번밖에 없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복잡다단하지만,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어차피 “남의 이목을 끌지 않은(discret)” 사건이며, “큰 소란없이(sans grand fracas)” 행해지고 있으며, 지난해 벌레처럼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 인간이란 봄에

17) “Une fièvre de joie s'emparait de lui au sentiment d'être la fois tant de personnes vivant tant d'aventures. Le petit Lazare était sans limites, ... il était sans forme : il avait mille formes.” p.212. 하나인 인간이 천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혜를 작가는 구가하고 있다.

나오는 새순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 죽는 법칙처럼 인류의 새로운 새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만물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작가는 주인공들의 착한 인성으로 성선설을, 자연법칙에 순응하고 죽음에 미련이 없는 나뉘나엘의 태도로 도가사상(Taoisme)을 엿보게 한다. 라자르의 경우를 빌려 작가는 고통많은 인생을 고민없이 즐길 수 있는 대담한 마음의 상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성을 잃게 하는 인류문명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 자연 보호를 강조하며, 일장춘몽인 인생을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있는 태도를 고무시키는 유르스나르의 인생관은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내용을 담는 고전주의 문체(l'écriture classique)로 표현되었다 하겠다. 유르스나르는 불문학사적 견지에서 몽테뉴(Montaigne)를 시조로 하는 인간성 탐구를 추구하는 모랄리스트 작가이며,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이고 중용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20세기 현대작가이지만 고전주의적 작가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M. Yourcenar, *Un Homme obscur, Une belle Matinée*, Gallimard, 1985.

Mémoires d'Hadrien, Gallimard, 1974.

Josyane Savigneau, *Marguerite Yourcenar*, Gallimard, 1990.

G. Genette, *Discours du récit*, in *Figures III*. Seuil, 1972.